

마음을 돌보는 진찰
서울
산업보건센터의
다운회
무료검진

글_이영경 사진_최재원

살면서 한두 번 경험해본 것도 아니건만, 병원 방문은 언제나 두렵다. 차가운 의료기기와 그중에서도 가장 외면하고 싶은 주사기 등은 해마다 열심히 먹은 나이를 무색하게 만든다. 일반인들도 긴장하는 건강검진에 한바탕 울고불고 난리가 벌어질 것 같지만, 예상외로 다운중후군 장애인들은 암전히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찬바람이 아직 오기를 부리던 2월 말의 어느 날, 공릉동에 위치한 다운복지관에서는 서울산업보건센터의 무료 건강검진이 진행됐다.



▲ 지난 2월 21(수)일, 서울산업보건센터는 다운복지관 4층 강당에서 무료 검진을 했다. 매년 2~3월에 진행되는 이 ‘연례행사’는 2002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사회 복지법인 산하 다운복지관 훈련생, 다운주 간보호센터 이용자 등 총 60여 명을 대상으로 신체검사 및 시력, 청력, 혈액검사, 소변검사, X-ray 등을 진행했다.

넓은 강당에 마련된 테이블과 그 위에 놓인 건강검진 도구 및 장비들.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검사는 채혈이다. 그 앞에 환우들이 앉아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팔을 내놓다가 잠시 머뭇거리기도 하지만 검사를 하는 서울산업보건센터 직원이 관철하며 다독거린다.

질병 예방 및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사회복지법인 다운회는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설립한 법인이다. 다운증후군 환우들이 건강한 인간, 높은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며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와 고용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1993년 창설했다. 다운회(多



運會)는 행운이 많은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다운’은 다운증후군에서 따온 말이기도 하다.

다운회 산하 ‘아름다운’의 김은주 팀장은 “처음 건강검진을 시작할 때는 이용 장애인들이 20명 정도였으나, 지금은 60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일반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예요. 모든 순간 보호자와 동행해야 하고, 또 병원에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직접 오셔서 검진을 해주면 이용자들이 일단 편안한 상태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채혈에 2~30분이 걸리기도 한다. 서울센터 직원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준다. 의사소통이 다소 어려울 때는 눈을 맞추고 손짓을 해가며 대화를 이어나간다. 다운증후군 장애인을 포함해 성인 발달장애인은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다운회(多運會)는 행운이 많은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다운’은 다운증후군에서 따온 말이기도 하다.





것이 매우 중요하나 그 기회가 부족하다. “매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예방 및 질병에 대한 대안을 세울 수 있으니 저희에게는 무척 소중한 기회입니다. 어느 분은 이 검진을 통해 고혈압임을 알게 되었고, 2차 정밀 검진이 이루어져 꾸준한 관리를 이어가고 계세요. 저희에게는 1년에 한 번 있는 큰 행사이자 이벤트죠.”

봄을 맞이하는 가장 따뜻한 나눔이자 ‘이벤트’

2002년 1회부터 지금까지 매년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건강검진을 이용하고 있는 서른여섯 살 백수련 씨. 그녀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검진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나이만 들었지 아직 애”라고 말하면서 웃었다. “일반 병원에 가서는 아무

것도 못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너무 고맙죠. 다같이 검사를 받아서 그런지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복지관 선생님 말씀은 잘 듣거든요.” 처음에는 겁을 먹기도 했으나 매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의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나 엑스레이 촬영은 아직도 난제(?)다. “그건 특히 복지관 선생님이 꼭 함께 계셔야 해요. 저와는 안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선생님이 계시면 잘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 비법을 모르겠어요(웃음).”

검진 중 카메라를 보자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브이를 그리고, 또 누군가는 채혈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기도 한다. 반면, 누군가는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는 기계 앞에서 울상을 짓는다. 그러자 옆에 있던

직원은 “에이, 그냥 서있으면 되는 걸? 얼마나 살찐는지 봐야하는데” 라고 말하며 웃었다.

아무래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이들은 서울산업보건센터 직원들이었다. 그러나 모두들 “힘들지 않다”고 말한다. 처음 동참할 때는 걱정도 했지만 몇 번 방문하다보니 일반인들 검진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 채혈을 담당한 건강진단팀 최민지 선생은 “물론 원활하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이용자분들도 잘 따라와 줍니다. 사실 다크호스 두 분이 계시는데, 일찍 와서 채혈을 마치고 가셨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라고 전했다.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센터의 다운회 무료검진은 봄의 문턱에서 장애인들의 마음을 진찰하며 따뜻한 온기를 가장 먼저 전했다. ☺



매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예방 및 질병에 대한 대안을 세울 수 있으니 무척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희에게는 1년에 한 번 있는 큰 행사이자 이벤트죠.

